

# 아중호반도시 전주의 면모를 바꾼다

## 전주시, 동부권 개발의 핵심 아중호수 주변 생태공원조성사업 설계용역 추진사항 점검

전주시가 동부권 개발의 핵심인 아중호반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시는 28일 아중호반도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 주변 활성화를 위한 '아중호반도시 다올미당'을 열고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아중호수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최근 신도시개발 등으로 인해 침체일로에 있던 전주 아중지구 일대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한 호반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새로운 생태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아중호수를 단순한 저수지의 개념을 뛰어 인근지역까지 포함한 아중호반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왕중왕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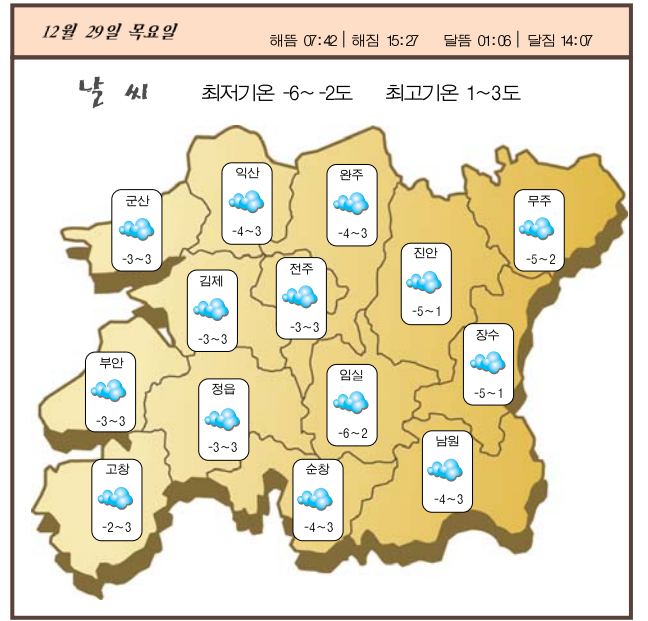
28일 전북대 심성문화회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왕중왕전을 송하진도지사, 김택곤 전주방송TV대표, 하현수전북신문연합회장, 정원택전북중기청장 및 시장상인연합회관계자, 도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와 관련, 아중호반도시 다올미당 위원들은 이날 실시설계용역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아중호수 내 새로운 볼거리 아이템 등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산책로(데크)의 유지관리 활동 및 아중호수와 수변 주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호수주변 주민과 자생단체, 마을공동체 등과 함께 환경감시 활동 및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중호반도시 다올미당 위원들은 앞으로 분기별 정기모임과 수시모임 등을 통해 아중호수 활성화 마스터플랜에 대한 방안제시와 유지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아중호반도시 다올미당은 지난해 '아중저수지'를 부르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아중호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아중호수 명칭변경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아중호수를 시민들의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김영재 기자



## 도내 초중고 76.4% 월2회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

전북도내 초중고등학교의 76.4%가 월2회 교사들이 독서토론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배움과 성장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교육청은 매주 수요일을 '출장과 회의가 없는 날'로 지정해 일선 학교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초중고 교사 1,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 월 2회 교사들이 참여하는 배움과 성장의 날을 운영하는 학교가 76.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1회 운영하는 학교는 96.7%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학교 혁신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을 배움과 성장의 날로 지정하고 교사들의 출장과 회의 없는 날로 삼을 것

을 일선 학교에 권장해 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배움과 성장의 날 안착화를 위해선 42.4%가 업무차이를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20.5%가 외부 출장, 11.8%가 각각 방과후 교육지도와 운영방법 이해 부족을 꼽았다. 배움과 성장의 날 운영 형태와 관련 독서토론이 50.1%로 가장 많았고 교원 동아리, 수업 나눔, 교육과정협의회 순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배움과 성장의 날은 민중적 학교문화와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모니터링 결과, 많은 학교에서 정착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도교육청, 혁신교육특구사업 매년 성장세

### 내년 익산 새롭게 포함 5곳으로 늘어... 예산 30억원으로 증가

전북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지역의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혁신교육특구사업이 성장세에 올랐다. 28일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혁신교육특구사업에 익산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주, 정읍, 남원, 완주군에 이어 5곳으로 늘어났고 예산도 3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혁신교육특구사업은 공교육 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해 전북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대응 투자 형태로 진행되며 전주의 경우 내년 양 기관이 각 2억

원씩 총 4억원을 투자한다. 지난해 2억원에서 2배로 늘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전주다움 교육과정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행복한 학교 만들기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읍도 처음 시작했던 지난해 양 기관이 각 7천만원을 투자했던 것이 내년에는 2억원씩 총 4억원으로 증액됐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샘고을 빛깔 교육과정 운영 △마을 선생님 △책샘 프로젝트 △우리선생님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남원도 작년 4억8천만원에서 내

년 5억원(교육청 2억, 지자체 3억)으로 증액됐으며 △삼천리 학력신장 △내만의 스토리 만들기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완주는 교육청 3억원, 완주군 7억원을 투자해 총 10억원을 조성해 △따뜻한 학교 △마을학교 △즐거운 학교 프로젝트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같은 혁신교육특구 사업은 첫 해인 지난해 17억1천만원(도교육청 6억, 지자체 11.1억), 올해 21억 6천만원(도교육청 8억, 지자체 13.6억), 2017년 30억(도교육청 11억, 지자체 19억)으로 점차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혁신교

육특구의 다양한 교육협력 사업이 지역공동체에 의미 있게 작용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교육특구사업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모아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교가 살아나는 등 지역 교육생태계를 회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마을(지역)에서 다양한 만남과 체험을 통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마을 시민으로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 주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 등 감사패 전달

전주시의회 김윤철(중앙·풍남·노송동), 박형배(효자8·4동), 서난이(비례대표), 최찬욱(진북, 금암1·2동) 의원이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주지회(회장 심재기)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28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주여성일자리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제27회 전주시 예술상 시상식'에서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의원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많이 있다"며 "앞으로 이 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예술상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문화 예술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문학, 음악, 국악, 무용 등 10개 부문에서 공적이 뛰어난 예술인에게 주는 상으로 문학 부문 이재숙, 국악 부문 김연, 무용 부문 변은정, 미술 부문 홍선기, 사진부문 허광재 등이 올해 선정에 영예를 안았다.

/김영재 기자

더 큰 열정으로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 창의적이며 감동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힘차게 뛰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부안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회 부안군의회**